

조현민 사장 “여성기업에 필요한 건 보호망 아닌 열린 시장”

(주한진)

美 세계중소기업학회 참가

여성기업 성장 막는 시장장벽 지적
“혁신성·역량 입증할 열린시장 필요”
韓 여성 스타트업 잠재력 강조
'사고의 리더십'으로 임파워먼트 제시

조현민(주한진) 사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ICSB 2026 월드 콩그레스(World Congress·세계중소기업학회 세계대회)'에서 역량있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열린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여성 기업인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는 역량 부족이 아니라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구조적 장벽과 보이지 않는 관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혁신성과 운영 역량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세계중소기업학회(ICSB)를 이끌



조현민 한진 사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CSB 2026 월드 콩그레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한진

고 있는 김기찬 의장 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에 따르면 조현민(Emily Cho) 사장은 지난달 30일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ICSB 2026 개막 세션'과 이달 1일 미국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여성 CEO의 글로벌 관점(Women CEOs Global Lens)' 세션에 연이어 참석했다.

조 사장은 연설과 토론을 통해 여성 CEO로서 산업 현장에서 체득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고의 리더십(Thought Leadership)'을 제시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진이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미군의 물류 파트너로 협력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물류, 국방, 공급

망 산업에서 여성 리더와 여성 장병 출신 인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위기 대응 능력, 규율, 전략적 사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역량은 고도화되는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진정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의미도 재정의했다. 'Empowerment'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 이양, 권한 분산이다.

조 사장은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외부에서 단순히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혁신가들이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의 장벽과 불필요한 관행을 함께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여성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복지나 지원 정책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혁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CEO의 관점에서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했다. 기업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조성자라는 것이다.

조 사장은 글로벌 여성 리더들과의 패널 토론 자리에서도 한국 여성 스타트업과 여성 기업인들이 가진 잠재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여성 창업가와 중소기업들이 빠른 실행력, 높은 기술 수용성, 강한 고객 지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는 허만 아귀나스(Herman Aguinis) 미국경영학회 전 회장, 카밀 번스(Camille Burns) 세계여성기업인협회(WPO) CEO, 아이만 엘 타라비시(Ayman El Tarabishy) 조지워싱턴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저출산 위기 속 기업들 출산지원 '통 큰 행보'

출생아 수 6.8% 증가... 민간혜택 확산
현대차·기아, 난임부터 육아까지 확대
신한은행 적금·부영 1억 장려금 눈길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생산 활동인구 급감과 내수 소비시장 위축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희망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

6일 국가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100명(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위기론에 공감한 민간기업들의 전례 없는 과격 지원이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의 '보여주기식' 단기 이벤트나 생색내기 마케팅에서 벗어나, 이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출산·육아 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동참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한 기업들은 출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모습. /뉴스1

현대차·기아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직원의 출산 전 단계인 난임 시술부터 장기 육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해 횡상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출산 시 축하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현대차·기아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다둥이 가정이나 사연이 있는 부부들을 발굴해 차량을 무상 기증하고 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는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캠페인에 본격 착수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타뱅크 행복을 쏘데이' 프로모션은 출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와 둘째 출산 시 타이어 50% 할인,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무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 장려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첨을 통해 최고급 세단(벤츠)과 유모차, 카시트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고가의 경품을 증정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경제적 보탬이 되는 특화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 외에도, 일반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호평을 받았다. 최고 연 5.0%의 과격적인 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착순으로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직원이 출산할 때 신생아 1명당 '현금 1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과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학계와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양성은 기자 ysw@

CJ대한통운, 친환경 물류 전환 가속

배터리 물류·리사이클 신사업 확대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사진)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터리 물류 및 리사이클 등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CJ대한통운이 6일 내놓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진)에서 CEO 메시지를 통해 “특히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선 수소전기 트럭 실증사업을 통해 실제 물류 노선에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친환경 물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ESG 및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했다.

향후 ESG 및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의 데이터 신뢰성과 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친환경 사업성과 관리, 이사회 운영 체계 고도화 등 지속가능 경영 전반의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범위를 기존 미국에서 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 등 해외 주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기온·홍수·한파 등 기후재난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규제 강화, 저탄소 기술 도입 등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고, 자산 유형과 사업 부문별 재무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외 물류 인프라 투자와 운영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 데이터 관리체계도 세분화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친환경 매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액화수소 운송 등 친환경 사업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에스원, AI 영상관제로 학교보안 시장 공략

늘봄학교 확대 속 보안수요 대응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으로 각급 학교들의 보안 점검이 강화되는 가운데 에스원이 AI 영상관제와 긴급 대응, 출결 관리 등을 결합한 학교 안전 솔루션을 앞세워 교육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에스원은 AI 기반 학교 특화 '안전 패키지'로 교육 현장 통합보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SVMS)'다. 기존 CCTV가 사고 발생 후 영상을 확인하

는 방식이었다면, SVMS는 AI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 알람을 전송한다.

업계에서는 AI 영상분석 기술이 단순 시설 보안을 넘어 교육과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CCTV가 사고 이후 확인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사전 예방형 보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SVMS에는 '침입·카상렌스·배회' 알고

리즘이 탑재돼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교내 배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이 밖에 폭력, 화재, 쓰러짐, 위험구역 진입 등을 탐지하는 총 6가지 특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 등 관리 인력이 부재한 시간대에도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운동장·후문 주차장 등 사각지대까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벨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상황 확인 후 전국 100여 개 출동 거점의 긴급 출동 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인비즈協, 인증기업 323곳 조사
원자재·상품 구매가 상승 64.1%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동 전쟁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상품 매입가가 크게 올랐다. 2곳 중 1곳은 거래처나 공급망 불안 등을 경험했다.

이같은 내용은 메인비즈협(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 전국의 메인비즈 인증기업 323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6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는 중동 분쟁 이후 매출·영업이익이 감소(크게 감

소+다소 감소)했다고 답했다. '늘어났다'는 곳은 8.4%에 그쳤다. '변화 없다'는 35.6%였다. 특히 중동 분쟁,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영 부담 수준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56.3%로 절반이 훌쩍 넘었다. '심각'은 100점 가운데 62.2점으로 매우 높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위기의 핵심 요인은 공급망 차질보다 비용 증가였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원자재 및 상품 구매가격 상승'(64.1%)을 꼽았다. 이어 에너지 비용 증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순으로 나타나 공급망 차질 자체보다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기업 경영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